AI digest 2026-11-19

11월 19일 AI 아침 브리핑

국내 소식을 먼저, 국내 연구 성과와 건설·설계 적용, 공공 서비스 동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.

1. 서울대, 휴머노이드에 언어 명령 연결하는 VLA 학습 효율화…동작 성공률 20%p 향상

구분: 국내 AI 연구 / 2026-11-18, YTN 사이언스 보도

- 서울대 연구팀이 카메라로 환경을 인식하고 사람의 언어 명령을 동작으로 연결하는 'VLA(비전·언어·행동)' 기술을 휴머노이드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. 구글·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고도화에 집중하는 분야입니다.
- 핵심은 학습 데이터 문턱 낮추기입니다. 기존 모방학습은 여러 연속 동작을 한 번에 완벽히 성공해야 데이터로 쓸 수 있었지만, 연구팀은 걷기·물건 집기 같은 개별 동작을 각각의 행동 AI에 학습시키고, 행동 간 전환은 가중치로 자연스럽게 잇도록 했습니다.
- 두 발로 균형을 잡으며 동작해야 하는 휴머노이드는 성공 데이터를 만들기 어려운데, 동작별 학습으로 성공 데이터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동작 성공률이 약 20%p 향상됐습니다.
- 주의: 성능 수치는 연구팀 발표 기준의 실험 결과이며, 다양한 실환경에서의 검증은 추가로 필요합니다.

제안 (BIM 연계): 연속 작업을 개별 단위로 쪼개 학습하는 접근은 시공 로봇의 공정별 동작 학습 설계에도 적용 가능한 구조입니다.

이미지: YTN 보도 영상의 휴머노이드 실험 장면. 출처: https://science.ytn.co.kr/program/view.php?key=2026111811040423723&mcd=0082

2. 하우드·플랜바이, AI로 건축법규 확인·도면 검토 자동화 추진

구분: 건설·BIM AI / 2026-11-18, 전자신문 보도

- 종합건축사사무소 하우드엔지니어링이 건설 AI 전문기업 플랜바이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건축설계 업무의 AI 전환(AX)을 추진합니다. 울산정보산업진흥원(UIPA)의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사업에 선정돼 5700만 원 규모의 AI 교육 및 기술 검증을 진행했습니다.
- 대상 업무는 법규 확인과 도면 검토입니다. 재개발·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은 건축법·소방·주택 규정과 지자체 조례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, 인허가 과정의 설계 변경 때마다 법규와 도면을 반복 확인해야 해 담당자 부담이 큰 영역입니다.
- 플랜바이가 건축 특화 AI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고 하우드가 실제 설계 자료를 제공해 실무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. 하우드는 과천자이 등 70여 건의 재개발·재건축 설계 실적을 보유한 설계사무소입니다.
- 주의: 현재 단계는 교육과 기술 검증(PoC 성격)으로, 실제 설계 업무 적용 성과나 오류 검출 정확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

제안 (BIM 연계): 법규 검토 자동화는 BIM 자동 검토(automated rule checking)의 국내 실무 적용 사례 흐름과 직결됩니다. 설계사무소 규모의 도입 사례라 대형 건설사 사례와는 다른 참고점이 됩니다.

이미지: 플랜바이테크놀로지스 제공 교육 현장 사진. 출처: https://www.etnews.com/20261116000325

3. 행안부 '모두의 광장' 개편…AI가 정책제안 작성·분류 지원

구분: 국내 공공 AI / 2026-11-18, 연합뉴스 보도

- 행정안전부의 국민소통 플랫폼 '소통혁신24'가 AI 기반의 '모두의 광장'(www.modu.go.kr)으로 개편됐습니다. 그동안 글로만 제안할 수 있어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습니다.
- 국민은 문장 입력 외에 음성이나 이미지로도 제안할 수 있고, AI가 음성을 문자로 바꾸고 이미지에서 글자를 추출해 작성을 돕습니다. 입력 내용을 분석해 제안의 개요·문제점·개선 방안·기대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, 비슷한 기존 제안과 관련 법령·지침 정보도 추천합니다.
- 공무원 측 처리에도 AI가 쓰입니다. 제안 핵심 내용 요약·분석, 담당 부처 추천 등 분류 업무를 지원하고, 온라인 토론 의견의 쟁점 정리도 돕습니다. 정책 초기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'정책공동설계' 기능도 포함됐습니다.
- 주의: 개편 개시 단계로, AI 제안 분류의 정확도나 실제 정책 반영 성과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제안 (BIM 연계): 민원·제안 텍스트의 AI 분류 구조는 건설 민원 처리나 현장 안전 제보 분류 시스템에도 응용 가능한 공공 AI 설계 사례입니다.

이미지: '모두의 광장' 홈페이지 캡처(연합뉴스 기사 게재 사진). 출처: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18084200530